

초점 - '베테랑' 전북현대 이동국

더욱 원숙해진 플레이... 결정적 순간마다 큰 힘

전북 현대의 베테랑 공격수 이동국은 여전히 뜨겁다. 우리나라로 마흔한살이 됐지만 젊은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조금도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원숙해진 플레이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힘을 보태고 있다.

이동국은 지난 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1차전에 선발로 등장했다. 대구FC와의 K리그 개막전(3월1일)에 교체로 나선 이동국은 이날 처음부터 최전방을 책임졌다.

후반 3분 이동국은 아시아 축구계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 한교원의 패스를 받아 넘어지면서 마무리했다. 직접 결승골을 넣고 김신욱의 쇄기골까지 도운 이동국은 후반 31분 뜨거운 기립박수 속에 그라운드를 떠났다.

베테랑의 힘을 제대로 선보인 이동국은 "우리가 준비한 경기(K리그) 개막전에서 다 보여주지 못해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지는 생각으로 경기했다. 빌드업 등이 지난 경기에 비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돌아봤다.

불혹을 넘긴 나이에도 정상권 기량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특기해야 한다. '축구도사'라고 된 듯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공격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 역시 각종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다. K리그 통산 215득점, 75도움을 기록 중인 이동국은 공격포인트 10개를 추가하면 300 공격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최전방 나서 불혹을 넘겼음에도 정상권 기량 유지 올해에도 각종 기록 갈아치울 태세

포인트를 달성하게 된다. '80(통산 득점)-80(통산 도움) 클럽' 가입도 목전에 뒀다. 두 부문 모두 K리그 최초다. 트레블을 노리는 전북의 주장으로서 후배들을 이끄는 것 역시 그의 몫이다.

챔피언스리그 기록 경신도 현재 진행형이다. 베이징전 득점으로 이동국은 챔피언스리그에서만 37골을 기록, 데얀(수원·36골)을 넘어 역대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로 등극했다. 데얀의 소속팀 수원이 올 시즌 대회 참가 자격을 얻지 못하면서 이동국은 격차를 넓힐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이동국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지금이 아닌 마지막에 웃기를 희망한다. "어차피 깨질 기록들이라 큰 의미를 두고 싶진 않다"는 이동국은 "지금보다는 은퇴하는 순간에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다"고 희망했다. 나아가 "선발이든 교체로 나가든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100%를 다 하기 위해 항상 생각하고 준비한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시즌을 치를 생각"이라고 전했다. /뉴스



2019 AFC 챔피언스리그 전북현대와 베이징 귀안의 경기가 실시된 지난 6일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현대 이동국 선수가 골을 성공시키고 팬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오늘 WT 국제코치 자격 프로그램 강사선발 교육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과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이하 WT)은 WT 산하 대륙연맹 및 국가협회 코치 및 지도자 등을 교육할 '태권도 코칭 전문가'를 양성한다.

제1회 WT 국제코치 자격 프로그램 강사선발 교육은 WT 중앙훈련센터인 태권도원에서 3월 8일 입소를 시작으로 11일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 미국, 호주, 영국, 요르단, 이집트 등 24개국 28명의 교육 참가자들은 WT 심판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한 태권도 전문가들로서 각 대륙 연맹 및 국가협회 추천을 받아 선발 하였으며, 교육 수료 후에는 각 대륙 및 국가별로 개최될 '국제코치 자격 프로그램' 교육 시 강사 등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기규칙과 반도핑, 선수보호 및 응급 상황 발생 대처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마지막 날에는 종합 평가를 통해 강사 선발 등을 할 예정이다.

재단과 WT는 이번 교육으로 태권도원이 태권도 교육의 중심으로 인지되고, 태권도 기술 및 기량 향상에 있어 국가 간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WT는 태권도원을 '중앙훈련센터'로, 아제르바이잔·중국·이란·영국·독일·우즈베키스탄 등을 '지역훈련센터'로 지정하고 있다. /무주=전문기자



윤성빈, 봅슬레이 세계선수권 우승 도전

한국 봅슬레이의 간판스타 윤성빈(25·강원도청)이 세계선수권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윤성빈은 8일(1, 2차 시기)과 9일(3, 4차 시기)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리는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세계선수권대회 2019에 출전한다.

세 번째 세계선수권 참가다. 2015, 2016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두 차례 대회를 치렀다. 2015년 빈터베르크 대회 8위, 2016년 인스부르크 대회에서는 2위에 올랐다. 올림픽과 월드컵 정상을 밟은 윤성빈이지만 아직 세계선수권 우승은 없다. 최근 휘슬러에서 열린 두 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우승한만큼 자신 있는 트랙에서 우승을 노린다.

세계랭킹 2위인 윤성빈은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1위로 올라설 수도 있다. /뉴스

'1차 심사 통과' 장수군, 축구종합센터 유치 총력

군민 1만명 유치기원 서명 운동 천천면 축구장서 친선대회 열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 후보지 공모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장수군이 군민 유치 기원 서명운동과 유치결의대회를 펼치는 등 유치 총력을 보인다.

7일 장수군에 따르면 24개 지자체가 신청한 대한민국축구협회의 제안서에 대한 1차 서류심사 결과 장수군을 포함한 1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후 협회는 3월 중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4월 중 우선후보지 3곳을 선정하고 6월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보여 1차 통과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이 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수군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단계별 전략과 대응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보이고 있다.

군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장수군민 1만명 유치기원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며, 특히 7일에는 천천면 축구장에서는 유치 기원 축구 동호회의 친선축구 대회가 열렸다.



장수군 유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조감도.

이날 친선 대회에는 장영수 군수, 류지봉 과장, 장수군 축구동호회 6팀 선수 및 관계자,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펼쳐졌다.

장영수 군수는 "사업추진의 용이성과 풍부한 연계 인프라, 천혜의 자연환경 등 최적의 입지여건을 부각시키고 대한축구협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대한민국 축구센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앞서 장수군은 제안 부지 총 42만 7,823㎡의 부지확보 및 저렴한 매입비, 폭염과 열대기 없는 고지대 청정 환경 여건, 대상지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나들리조트 및 10km 승마로드, 와룡휴양림, 승마체험장 등을 활용한 산악 체력훈련 가능, 그린장수 치유의 숲 및 온천욕 등 선수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회복의 최적 환경,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명분과 당위성 확보, 도로교통 발달 등을 강점으로 대한민국 축구센터 최적지로 부각시키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